

## 현대문명이 가져올 파국 경고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 소아과 의사 **李容吉**씨

지금 독서중

“기계문명이 발달할수록 인류의 방향이 잘못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문명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며, 앞으로 내면세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잠실의 아파트단지에서 자리잡은 이용식소아과의원 **李容吉**원장(49)은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김명자·김건 옮김, 정음사)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이라고 소개했다.

“엔트로피란 더이상 ‘일’로 바꿀 수 없는 에너지양을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사용가능한 에너지는 지하자원과 태양열 두 종류인데, 이 모두 사용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고갈될 정도로 사용하면 재생이 불가능해지죠. 말하자면 세상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모든 에너지의 고갈을 초래하며, 모든 유기체는 자신이 만들어낸 폐기물에 싸여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 책은 예측한다.

“高엔트로피문화에서는, 고에너지를 유출해 물질적 풍요와 욕구충족을 좇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체계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책은 에너지 유출이 최대화된 우리 사회구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한다. 오늘날 우리는 엔트로피의 분수령에 있으며, 低엔트로피사회랄 수 있는 1차 원칙들, 즉 농업·공업·상업 등의 기본적 가치에 의미를 돌려야 한다고 밝힌다.

“低엔트로피문화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며, 인간을 자연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도구가 아닌, 생명의 원천으로서 보존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즉 점차 동양사상이 모든 사고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도가사상이 그것이지요. 물질만 추구해온 우리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조한 이 책을 정치인들에게 꼭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소아과를 택한 이유를 묻자, “단지 어린이가 좋아서”라는 짤막한 대답 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맑게 느껴진다.

5평 남짓한 대기실에는 고만고만한 꼬맹이들이 ‘놀이방’에 왔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구는 게 귀엽다. 한쪽 서가에 가득 꽂힌 어린이책들이 이원장의 세심함을 보여주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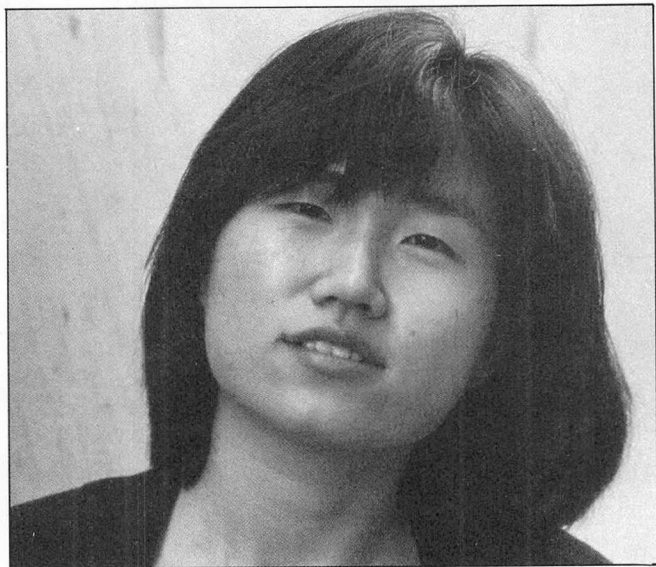
“근래들어 소아천식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공해 탓이지요.”

이원장은 이따금 어릴 때 숨쉬던 고향 강원도의 공기와 요즘을 비교해본다면서 갈수록 유해화되는 환경을 우려했다. 환절기 때는 바쁘지만 한여름·겨울에는 모처럼 ‘방학을 맞는’ 기분으로 실컷 책을 읽는다고.

“현대의학엔 한계가 있습니다. 박사나 의사니 하는 권위의식을 갖고는 절대 환자를 치유시킬 수 없어요.”

그의 말에서 ‘仁術’이란 말의 실체를 느끼며, 히포크라테스의 말 한마디를 떠올려준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라는.

—권정자 기자



## 교육현실에 대한 준열한 비판 도종환의 교육시집 「지금 비록…」

— 잡지기자 **鄭芝瑛**씨

지금 독서중

‘대학입시라는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혹은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명문대 입학이라는 훈장을 탄 戰士는 우리시대의 뛰어난 용사일 수 있는가’ 하는 조금은 엉뚱한 공상을 해보는 것도 ‘전장’에서 후줄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병사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일 수도 있다. “우리 교육제도가 전인적 인격형성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라는 상대적인 잣대로 삶의 질을 규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영(25·「대학으로 가는 길」 기자)씨는 자신이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사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특히,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次善策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더이상 입시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나갈 노력이 엿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일종의 ‘정서적 망명’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이즈막 읽은 책은 도종환시인의 교육시집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제3문학사)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수험생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대학선택에 결정적인 안내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절름발이 교육제도를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투한 연모의 정을 노래한 「접시꽃 당신」으로 도종환시인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시집 뒤편에 실려 있던 우리 현실에 대한 시인의 치열한 시적 대응

또한 읽어왔다는 정지영씨는 시인의 시세계 변모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접시꽃 당신」이 간행된 이후, 일부 매스컴이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으로 몰고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개인사적 고통을 노래하고 있지만 도시인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면, 그가 우리 현실의 고통을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있는 열린 정신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시집은 올바른 교육제도를 건설하려는 교육운동가로서 교육현장들의 모순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전교조활동을 이유로 교직에서 파면되고 투옥되었던 시인의 경험을 지렛대로 삼아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결코 목소리만 큰 시들이 아닙니다. 민주적이고 전인적 교육의 바람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집은 때로는 기도의 형식으로, 때로는 자기고백의 형식으로 참교육을 위한 소망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거듭나, 올곧게 세워져야 할 교육현장에 대한 시인의 열정이 곳곳에 스며 있죠.”

정지영씨가 이 시집에서 감동깊게 읽은 시는 「어릴 때 내 꿈은」의 다음 귀절. “그러나 하루종일 아이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 그런 선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 … / 아이들이 저렇게 목숨을 끊으며 거부하는데 / 때문지 않은 아이들 편이 되지 못하고 / 억압하고 짓누르는 자의 편에 선 선생이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이권우 기자



## 우리시대 삶의 근원 캐는 현장탐사 전진우 창작집 「하얀 행렬」

—기자 全河述씨

지금 독서중

문교부 산하기관인 대한교원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교원복지신보」 기자 全河述씨(31)는 사실

문학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은 아니다. 그 또래의 다른 평범한 직장인들보다는 비교적 많은 독서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대학에서 전공한 역사학관계 책을 주로 읽지 문학책은 그저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것들 가운데서 가끔씩 골라 읽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직업적인 평론가들에게조차 아직 귀에 설은 전진우의 첫 창작집 「하얀 행렬」(현암사)을 요즘 한창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조금은 씩스러워 하며 그가 털어놓는 이유는 이렇다.

“전진우씨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제가 그의 창작집을 섣뜰 손에 들게 된 것은 60년대 우리 소설문단의 대표작이었던 김승옥 때문입니다. 서점에서 ‘전진우’란 이름이 박힌 이 책을 발견하곤, 언젠가 우연히 읽었던 그의 신춘문예 당선작이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패러디한 「서울, 1986년 여름」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죠.”

그래서 집어든 「하얀 행렬」에서 전하술씨는, 그러나 단순한 「舊緣의 확인」을 훨씬 뛰어넘는 진진한 재미와 날카로운 주제의식을 발견한다고, 김승옥의 패러디 정도라면 여겼던 「서울, 1986년 여름」도 이번에 다시 읽고 보니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작품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작가정신이나 역사를 보는 전망의 측면에선 오히려 전진우씨의 것이 낫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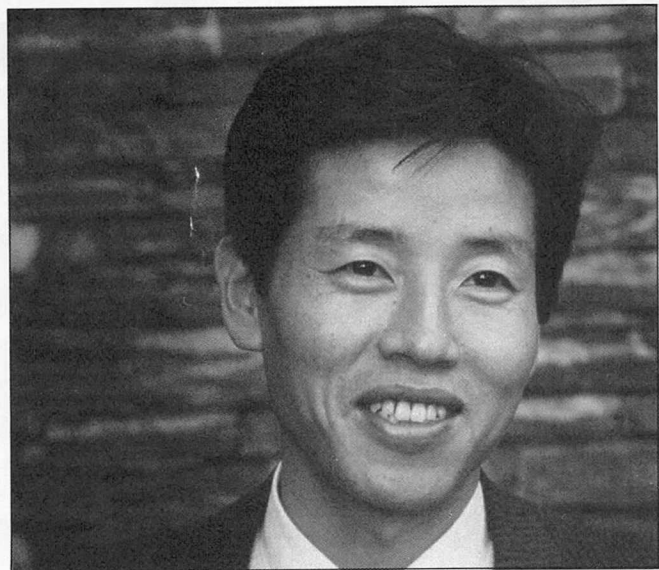
생각됩니다. 두 작품이 모두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86년 여름」 쪽이 훨씬 건강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밖의 다른 작품들, 예컨대 「장씨의 당근」 「떡살」 「천수의 매」 등에서도 전하술씨는 민중 혹은 민중운동가의 삶과 의식을 접하면서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의식변화와 자기탐구의 성실성을 발견한다. 그러면서도 그 성실성이 전혀 ‘답답함’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진우 소설의 가장 큰 미덕으로 꼽는다.

“아마 작가가 신문기자를 전력으로 갖고 있다는 데 크게 빛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풍부한 취재와 관찰에서 비롯되는 현장의 실감과 재미가 독자들로 하여금 진지한 주제를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게 만듭니다. ‘민중’이나 ‘운동’을 이야기하는 다른 작가들이 흔히 보이는 어설피름이나 비현실성을 전진우씨의 소설에선 찾아보기 힘들죠.”

전하술씨가 만들고 있는 「교원복지신보」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무가지로 제작, 배포되는 특수간지. 종합일간지와는 달리 적은 인력으로 살림을 꾸리다보니 일선기자 입장에서는 취재, 기사작성, 편집, 제작 등 신문메카니즘의 전과정을 두루 뿔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말하는데, 이제 3년 남짓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런 그가 요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기차소리 요란한 지금의 서울 아현동에서 좀더 조용한 곳으로 주거를 옮기는 일이다.

—강철주 기자



## 神을 찾아나서는 18편의 이야기 미국 수피즘협회 편 「꼬마성자」

—회사원 金明修씨

지금 독서중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책은 꽤 여러 종류이다. 소위 처세술을 소개한 것으로부터 난해한 철학을 쉽게 풀

대중철학서도 있고, 神으로부터 해답을 찾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金明修씨(30·고려병원 기획실)의 경우는 종교가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준다.

“종교는 제게 늘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현실에 짜증내고 있지나 않은지, 자신만을 생각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저의 이런 성향을 아는 아내가 성당을 다녀온 어느날

「꼬마성자」(미국수피즘협회, 정신세계사)를 건네주더군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지요.”

모두 18편의 우화로 엮어진 「꼬마성자」는 요즘 한창 인기있는 명상서적의 하나로 상인·화가·교사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진 작가들이 썼다. 제각기 다른 줄거리이지만, 공통적으로 절대자를 향해 수행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특정 종교에 대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자인 신은 어떤 모습이고, 신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표제가 된 「꼬마성자」도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주인공은 스승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다른 수도자들로부터 미움을 산다. 이를 안 스승은 제자들에게 새 한마리씩을 나눠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버리라는 시험을 내린다. 모든 제자가 다 실행했지만 주인공만은 새를 죽이지 못했는데,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었다는—신이 보기 때문에— 것이다. 이후로 주인공은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이 책이 재미있게 읽히는 건 설화구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에게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를 수행, 성취하는 간단한 구조이거든요.”

신의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은 그 과정에서 고통과 장애, 고독을 극복하고 결국엔 신의 모습을 찾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야기들이 다분히 피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나 현실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줄 따름입니다. 이 책은 그 뜻을 차분히 음미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인간의 고운 심성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선하게 살라’는 경구를 좋아하는 김명수씨가 이 책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이성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척도가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럴 땐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죠.”

김명수씨가 고려병원 기획실에서 하는 일은 사보를 제작하는 일이다. 한달에 한번 발행되는 사보를 혼자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한다.

“사원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읽기 때문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면 책임감만큼이나 보람도 큼니다.”

—홍현숙 기자  
1990/01/05 25